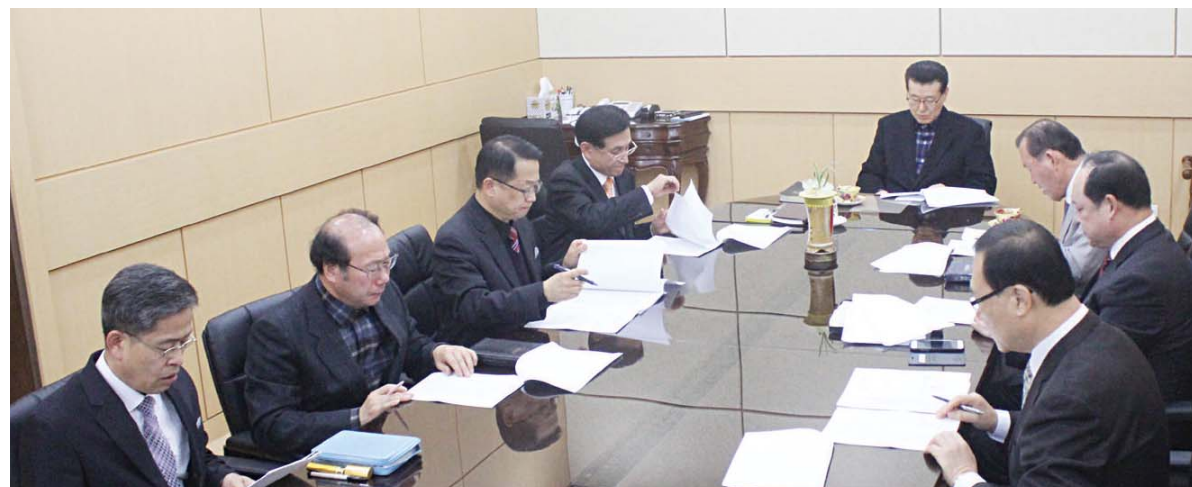




‘예수’ 외치며 다원주의 단체 지원 안돼

제64차 총회 6회 임원회 ... 한 해 마무리, 새해 준비

교단 제64차 총회 6회 임원회가 지난달 28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영준 목사의 기도,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행 16:16-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감탄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다원주의를 지원하는 것은 발립법의 귀신들린 여인파도 같은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

귀의 궤계를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진동용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총무보고에서 교단 업무보고로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 타교단 출신 교역자 연수교육 및 권목고시, 부흥사회 연수세미나, 교계업무보고로 한국기독교 교단협의회 제30차 정기총회, 2015 통일교육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교단 재무 김종연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영준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안전 및 토의 결의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휴직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전국교역자국 송년예배, 지방회 설립 요청, 총회신학교, 목대원, 신대원 졸업예배, 2016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및 제4회 실행위원회 등이 보고되었다.

아울러 총남지방회 회원교회 긴급지원 요청의 건을 목양신문 지면을 통해 기도와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의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조용목 목사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행 3:16)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아니한 대상을 믿거나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유해무익한 믿음입니다. 믿는 근거나 대상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실제의 경험히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는,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는, 죽음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셋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여러 번 예고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속사역이 완수되었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넷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매우 다양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믿음입니다.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느끼지 않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속죄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죄 사함 받은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둘째는,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

있든 모두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믿음을 가지게 되며 예수께서 이 믿음을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를 입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자녀가 아버지께 무엇이든 요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넷째는, 신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유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다섯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섯째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천국천사만 있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없습니다. 의롭게 된 자만 있고 죄인은 없습니다. 진실만 있고 거짓은 없습니다. 아담다움만 있고 추한 것은 없습니다. 낮만 있고 밤과 어둠은 없습니다. 영생만 있고 사망은 없습니다. 기쁨만 있고 애도와 눈물은 없습니다. 부요만 있고 가난과 결핍은 없습니다. 건강만 있고 질병은 없습니다. 사랑만 있고 미움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모두가 여러분에게 금생과 영원을 통하여 경험하는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목회대학원 2015학년도 종강예배 및 사은회

스승의 은혜에 감사, 주의 종으로서의 헌신 다짐



임종달 목사

교단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사진) 2015학년도 하반기 종강예배 및 사은회가 지난 달 23일(월) 오전 11시 목대원에서 드려져 한 학기동안 만학의 열정을 불태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

사드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원회회장 권정로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정애 전도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벤전 4:10-11 말씀을 본문으로 '헌한

정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주신에 감사드리고 사명 받은 우리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목대원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광고,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천안세계로교회 기도와 후원 요청

창립 5주년을 맞는 천안세계로교회(담임 김선경 목사)는 출석성도 장년 10명 내외와 아동 5명이 있지만 성도들은 거의 초신자이며 최저 생활자들이어서 재정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보조금 1천만 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이었으나 보조금 1천만 원은 임대료로 이미 다 소진된 상황이고 현재 임대료가 3개월간 밀려있다.

이제 곧 12월 말이면 4개월이 되어 교회를 비워주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3개월 밀리면 교회를 비워주어야 함)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고 매일 밤을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교회를 이천해야 하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옮길 수 없는 형편으로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 후원계좌 : 농협 301-8000-5841-61 (천안세계로교회)
• 연 락 처 : 010-8000-5841

포토뉴스



2015년도 타 교단 출신 가입자 연수교육이 지난 16일(월)과 23일(월) 양일간 총회본부에서 열려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을 희망해온 교역자들에게 교단의 신조와 교육과정, 목회방침 등이 전수되었다. 총회장 진동용 목사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가진 수료식에서 수료증서를 일일이 나누어 교단가입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 11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 정운기 목사, 최병진 목사, 김바울 목사, 조선남 목사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헌금 : 1,200,000원
- 선교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성탄트리 점등...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CTS, '2015 대한민국 성탄축제 개최'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는 올해로 14 회제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지난달 28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대형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게 비추는 '2015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2015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CTS공동대표이사 전용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성탄메시지를 시작으로, 세태민, 군인, 지하철 기관사,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국회조찬기도회장 홍분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 정관계인사, CTS공동대표이사 전용재 감독, 채영남 목사 등 교계인사가 점등인사로 참석해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다.

이어지는 축하무대는 찬양전교단 송기장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바리톤 권운만, 소프라노 황후령 등이 출연해 기쁜 성탄을 축하하는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이번 성탄트리는 높이 18m로 핑크와 블루계열의 크리스마스 조명과 아름다운 눈꽃 모양 조명으로 연출되었으며 특별히 트리 주변에 LED 장미정원 설치로 포토존을 구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성탄트리는 2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50일간 불을 밝힐 예정이다.

추락해버린 목회자의 위상, 원인은 성격장애

교갱협 '목회자의 성격장애와 목회윤리' 세미나 열어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대표회장 이건영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원교회(김경원 목사)에서 '목회자의 성격장애와 목회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관직 교수와 이상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목회심리학을 기초로 '이해와 치유'에 주목하고, 교회정치에 임하는 윤리적 자세에 대해 제언했다.

'목회자의 성격장애 이해와 치유'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관직 교수는 △오래 참고 △운유하며 △시가지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상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등의 성경말씀 키워드를 토대로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우(愚)와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지켜가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먼저 "목회자 캅부터 시간에서 당사자들은 나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을 사려깊게 고민하고 감동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만도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악 중 하나"라고 주목한 그는 "교만은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요소이다. 교만은 목회에서 패

망의 선봉이다. 과대망상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공간의 결여가 특징인 이 장애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성격적인 결함이자 죄악"이라며 "자기중심적인 목회자는 양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인 목회를 한다. 양들의 이름에 공감할 줄 모르며 양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인식조차 못할 수 있다. 목회자는 교만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루터대 만들겠다”

루터대학교 제6대 김영옥 총장 취임



루터대학교(재단이사장 김철환 목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루터대학교 2층 제물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학생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옥 박사의 제6대 총장취임예배를 드렸다.

김영옥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루터정신과 학교설립 이념에 부끄럽지 않은 총장이 되겠으며, 루터대학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김철환 루터대학교 재단이사장은 '이 때를 위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 봉착해 있던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사더를 세우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루터대학교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김영옥 총장을 세우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경숙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도 이미 섬김의 리더십이 증명된 김영옥 총장이 학교 구성원들과 협력할 때 고난이 유익이 되며 전회위복의 기회가 되서 분명 명품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구세군자선냄비, 1일 시종식 갖고 모금 시작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2015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50일간의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이지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제1차관, 서울특별시 의회 박래학 의장, 서울특별시청 류경기 행정1부시장,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 구세군 홍보대사 가수 홍대광 및 친선대사 오세득, 송승환, 양준혁, 이사벨, 박인영, 선우림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매년 1억 원씩 4년 넘게 기부해온 신월동 주민 이상락 씨의 구세군 교역기부자 모임 베스트너클럽 가입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2015년 자선냄비운동은 시종식 이후 전국 450여 곳에서 70여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며 구세군은 거리모금 외에도 물게이트모금, 교회모금, 찾아가는 자선냄비모금, 물품후원, 기업모금, 온라인모금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정기후원회원모집(1670-1908)과 ARS 모금(060-700-9300)도 펼쳐진다.

3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디지털 나눔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선냄비 모형

물 제작식이 열렸다.

자선냄비 시종식은 매년 자선냄비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정부, 기업, 종교 등 사회 각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범국민적 이웃사랑 운동임을 선포하는 자리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 일으키는 영풍회”

신임 대표회장에 박철수 목사 선출, 총본부장직 신설

한국기독교영풍회는 지난날 30일 갈보리교회(조예환 목사)에서 제33대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대표회장에 상임회장 박철수 목사를 선출하고, 회칙개정을 통해 총본부장직을 신설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신임 대표회장 박철수 목사는 취임사에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대표회장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우리 부흥사들이 먼저 성령충만으로 재무장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조예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임회원 인준, 사무보고를 비롯한 각종보고, 회칙개정, 회장 및 임원선거, 신임 대표회장 인사에 이어 신임대표회장 박철수 목사 주제로 신안건토의 등으로 이어졌다.

이임한 직전회장 조예환 목사는 "늘 따뜻한 봄의 씨앗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었다"면서 "종말의 징조들이 날마다 아득운 뉴스로 들려요



는 힘든 시대에 우리 영풍회가 복음으로 시대를 깨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박철수 목사(상임회장)의 사회, 김장일 목사의 설교, 대표회장 조예환 목사의 인사말, 서태성 목사(총감사단장)의 헌금기도, 오병열 목사(증경회장의 격려사, 한병기 목사(증경회장의 축사, 이규봉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어 편

무인 목사(직전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이날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박철수 목사, 상임회장 송관상 목사, 운영회장 윤이래 목사, 홍보회장 지미숙 목사, 선교회장 정희인 목사, 교육회장 이성현 목사, 해외성회회장 신석 목사, 총본부장 이규봉 목사, 총사업본부장 서태성 목사, 총감사단장 정덕화 목사, 사무총장 이광호 목사, 상임총무 임영선 목사서기 김용희 목사, 회계 권영만 목사, 회의록서기 김철호 목사

교회연합신문 창간 25주년 기념식

회장 유종만 목사 취임식도 함께 가저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준호 목사)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6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메리어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으로 선임된 유종만 목사(영택시온성교회)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기념식에는 교계 연합기관과 교단, 언론사 관계자들 외에도 지난 25년간 교회연합신문이 교계 언론으로서 정도를 걸을 수 있

게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후원자들이 참석해 25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이사 차기전 목사(선교중앙교회)의 사회로 이사 김경직 목사(미평교단 대표)의 성경봉독, 전윤희 집사(영택시온성교회)의 특송에 이어 김정영 목사(부산동성교회 원로)가 시 3:4, 출 3:7-8 말씀을 본론으로 설교했다.

제2부 회장 취임식에서 발행인 강준호 목

사로부터 회장 취임패를 받은 유종만 목사는 "교계 주간지로서 25년을 버티어 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며 "그간 수많은 아픔과 잠움으로 매 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고난이 지금의 성숙한 교회연합신문을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논설위원 이철재 목사(기독교한국오순절교회 감독), 부신장사대 재경동교회장 순윤탁 목사(남대문교회), 논설위원 김진옥 목사(서울지구총교회) 등이 축사와 격려사 순서를 맡았으며, 교계 언론인 1세대 김남식 목사(한국장로교사회 회장)가 '내가 본 교회연합신문'이란 제목의 논평을 전했다.

강준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회연합신문이 수많은 시련에도 꿋꿋이 자리에서 2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연합신문을 사랑하시는 여러 후원자와 독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교회연합신문이 그간 한국교회의 정화와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기총, 제2회 다문화가정친정부모 초청행사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내년 3월 7일부터 17일(까)까지 총 10박11일 일정으로 50가정 100명의 부모를 모시고 국내에서 '제2회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식구)초청행사'를 갖는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세기총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 국가를 만들고,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해 제1회 다문화 친정부모 위로 초청행사'를 가진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내 다문화가정들이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정착할 때까지 행사를 진행하지는 의견과 설문조사를 수렴해 제2회 행사(2016년)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가정은 친정부모(식구) 2명의 비행기 티켓, 비자 발급 수수료, 관광비용(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주관), 기프트 카드(초청자 1인당 100,000원)를 지원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삶을 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소외감 없이 대한국민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게 되며 부모님들에게 결혼이주

여성들의 삶을 보여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족 간 정을 쌓는 추억의 장이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서울시 관내 다문화가정들이 이번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에서 기획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지부 및 적극적 관심을 가지는 교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보내어 접수하고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및 한국교회와 협조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전 세계 향한 부흥운동과 선교전략 확대

한기부 대표회장에 장항희 목사 취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 제47대 대표회장 장항희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달 30일 든든한교회에서 드려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양명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교육회장 김영남 목사의 기도, 총사업본부장 김학수 목사의 '성령의 불길로 세계로' 구호제창, 증경대표회장 이윤규 목사의 '선한 일'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상임총무 유무한 목사의 광고 후 증경대표회장 배동운 감독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취임식은 운영회장 윤보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직전대표회장 최영식 목사의 이임사, 증경대표회장 전용림 목사와 정도출 목사의 격려사, 대표회장 장항희 목사의 취임사, 회장단 및 실무원원 소개, 김요셉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와 지용덕 목사(한기부 LA지부 대표회장) 등의 축사가 이

어졌다.

신임 대표회장 장항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사)한기부는 대표회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은혜운동, 성령운동을 전개해 '성령의 불길로 세계로'라는 표어 아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세계로 전달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장 목사는 "한기부는 제주시부와 필

리핀, 미국동부, 서부지부를 중심으로 미주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망리하여 전 세계를 향한 부흥운동과 선교전략을 확대하는 전 세계를 향한 한기부가 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3부는 임준식 목사(선교회장)의 사회로 특별기도회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성령운영 본부장 정여균 목사 진행의 나눔의 시간, 송일현 목사의 축하의 메시지와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흥사로서의 열정 회복과 시대적 사명 일깨워

교단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세미나



강사
조남영 목사



강사
정운기 목사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달 17일(화)~18일(수) 1박2일 동안 전북 남원 중앙교회(서정복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가을산행기도회 및 부흥사 연수세미나를 실시했다.

산행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서정복 목사는 막 6:4~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통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깜짝 놀라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부흥사들은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①한국교회를 위하여 ②교단 발전과 정책위원회장과 정책위원들을 위하여 ③총회장과 총회임원 및 교단교회들을 위하여 ④교단 부흥사회의 활성화와 부흥사들의 역동적인 사역을 위하여 ⑤WCC와 종교다원주의자들 및 동성애입법 저지를 위하여 ⑥부흥사들의 지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산 후 남원중앙교회에서 열린 부흥사회 1차 연수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조남영 목사(기쁨순복음교회)는 마 7:15~23 말씀을 통해 '새들을 분별하자!'라는 주제로 "먼저 부흥사들이 하나님중심 성령중심, 진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교단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 혼돈의 시대에



◀ 신재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부흥사회장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에 열린 성령충만기도회에서는 김인찬 목사(지도고분, 청신교회)가 히 11:23~29을 본문으로 '모세의 리더십에서 배우자!'라는 말씀을 통해 "모세로부터 거절, 버림, 인내, 결단, 승리의 리더십을 본받자"고 강조하고,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아침에 시작된 2차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정운기 목사(대전양무리교회)는 요

일 4:1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다른 영의 역사를 분별하자!'며 기독교계 안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비 이단들의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별하여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켜 나가는 데 부흥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폐회예배에서는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회장)가 롬 1:16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자랑스려워하자!"고 역설하며, "우리 부흥사들이 마지막 때 강력히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흥사회 가을 산행기도회 및 연수세미나는 참석자들에게 "작금에 일부 교단 이탈자들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영혼들에게 우리 교단의 확실한 영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였으며, 가장 성경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었다.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영적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부흥사로서의 열정 회복과 강력한 시대적 사명감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 헌신하라”

순복음예수나라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달 22일(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 순복음예수나라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 안수집사, 권사 7명에 대한 임직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건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안재홍 목사(순복음만남의교회)의 기도,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회장)의 빌 4:13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히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다"면서 "임직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라"고 격려했다.

2부 임직식은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회장), 김건수 목사(지방회 회장), 안재홍 목사



(지방회 총무)가 안수위원으로 집례한 가운데 임동모, 김영호 집사의 안수와 이경희, 조규년, 윤상진, 최용여, 임현주 권사의 취임을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안수, 악수례, 공포, 임직패 증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에는 한영남 목사(빛나리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성종경 목사

(제주트리교회)의 축사, 임동모 안수집사의 담사와 꽃다발과 선물증정이 있었으며, 김건수 목사의 광고와 신재영 목사(김천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은 순복음예수나라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애찬을 나누며 따뜻한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믿음의 선한 싸움 통해 주신 사명 감당'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2일(월) 은혜와진리교회 대전성전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미순 목사의 사회, 김협시바 목사의 기도, 이어 부회장 김병목 목사가 딤후 4:6-8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사도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주



제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교단과 지방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후 은혜와진리교회 대전성전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

간을 가졌으며, 식사 후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충남수목원으로 이동해 각양각색의 식물과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및 도마성지순례, 복음 전파 사명 다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 달 24일(화) 오전 11시 한우리교회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 부회장 이상석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설교, 회계 김은수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렸다.

오 목사는 딤후 3:16-17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와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기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행하는데 있어서 게을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을러 "목회자는 교회들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주의 종들도 서로 돌아보며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것"을 당부했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주제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교단의 부흥 발전과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우리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고, 오후에는 근저에 위치한 봉화산을 등산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남동지방회는 지난 달 19일(목) 가야 기독교 역사를 최초 발견한 조국현 목사의 안내로 가야의 건국 신화가 깃든 구지봉 기슭에 자리한 국립김해박물관을 중심으로 도마의 설교 역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도마성지를 둘러본 지방회원들은 하나님



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짐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도마성지순례를 안내한 조국현 목사는 30년 전부터 끊임없는 연구로 가야는 기독교국가였다는 것을 많은 문헌

과 유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언해오고 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국내 도마성지순례를 다녀 갔다"면서 "이 연구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이라고 고전했다.

민족복음화부흥협 19대 대표회장에 김병호 목사

회원화합과 민족복음화의 기반 마련 다짐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병호 목사) 제34차 정기총회가 지난 달 27일(금)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어, 본 교단 경기지방회 서기 김병호 목사가 18대에 이어 19대 대표회장으로 연임되었으며 회원화합과 민족복음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회장 김찬영 목사(인천갈매산기도원)의 사회로 시작되어 여성상임회장 황화선 목사(은광교회)의 기도, 서기 김두형 목사(예명교회)의 성령봉독(시 31:15-16), 총재 김용상 목사(원주제일교회)가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용상 목사는 시 31:15-16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할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될 것"이라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민족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이며 나아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지도위원 최정숙 목사, '동 협의회 총재와 대표회장을 위하여' 강사단장 양순옥 목사, '동 협의회 회원들의 교회부흥을 위하여' 여성수석회장 임종순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증경회장 엄재용 목사(대전시민교회)축사, 부총재 주화순 목사(목양교회)와 김보화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부총재 우광순 목사(양분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김병호 목사의 사회로 부총재 황대선 목사(성은교회)기도, 회원점령, 각부 보고(사무총장보고, 서기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보

고, 대표회장 및 임원선출, 회계교정 및 개정, 신입회원 환영, 신안건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 최길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표회장과 임원선출에서는 현직 대표회장 김병호 목사와 전 임원이 열심히 헌신하여 금년에 많은 업적을 이룬 공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연임되었으며 여성상임회장 황화선 목사는 2년을 연임하였기에 여성수석회장인 임종순 목사를 여성상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선출된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2016년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 여성상임회장 임종순 목사(성광교회), 사무총장 라미화 목사(인천복원교회), 서기 김두형 목사(예명교회), 회계 황정숙 목사(참사랑교회), 강사단장 양순옥 목사(천성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전 대구경북지방회장
· 안동성곡교회 담임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일본에 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에 김인식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놓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나의 책이며,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과거가 보이고 내 현재도 보이고 내 미래도 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명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전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의 기록입니다. 그날 따라 고기가 전혀 안 잡히는 날입니다. 새벽까지 잡은 것이 없는데 이제는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 다. 그 이른 시간에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변으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기회와 결단

(눅 5:4-11)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니 없던 고기가 어디서 생겨나나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 세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은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까지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잡기에 되었더라” (눅 5:6-7)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빈 배가 만전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사례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나를 떠나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곁에 있기에 너무나 두려운 신분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란 그 광경을 지켜본 세 사람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반세 수고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물고기가 잔부였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고, 왜 사는지 모르고 허둥대며 살았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되는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생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붕괴, 탈선, 이혼 등 저 만큼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그분이 부르면 천지는 일제히 섭니다. “괴원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뻗으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사 48:13)

요즈음 자연이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쓰나미, 해일, 성경은 파도를 하나님의 콧김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물이 바

다 가운데 영기나이다” (출 15:8)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신앙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인생의 뿌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거스름이 인륜을 범한 죄라면 하나님을 거스름은 천륜을 범한 죄입니다. 죄중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공권력은 범죄자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범죄는 항상 먼저 일어나고 공권력으로 사후에 수습하는 모양체입니다. IS가 프랑스보다 약해도 사고를 일으키니 프랑스가 가혹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8-11)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이 세상의 삶을 가장 공의롭게 판결할 때가 옵니다.

하루살이는 불빛이 한탄하면 그제 죽는 길인줄 모르고 달려들니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생을 주변에서 보게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하 놀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그뿐으로 알고 있다보니 너무 쉽게 자살합니다. 가정에 이미 성범죄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술, 마약, 도박, 게임, 쇼핑중독, 일중독에 빠져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 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4) 인생은 세상이라는 지뢰밭을 지나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무대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여기쯤에서 멈추어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내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나의 시간은 지금, 바로 이시간 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세월호는 침몰되기 직전에 배는 계속 기울고 있었지만 괜찮다고 그냥 기다리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배가 기울어져도 놀이 기구를 타듯이 웃고 즐기고 사진을 찍다가 배가 침몰할 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간직해야 합니다. “네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삼는가하면, 의원 사무실에서 목탁을 치는 등 거의 ‘종교폭력’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 다 한다.

이제 불교는 결핍하면 고위직 기독교인 사들의 개인 신앙에 의한 기독교 행사 참여와 발언을 시비 삼는 악습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는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며, 기독교 신앙을 억누르려는 고약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 분열의 단초가 된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시위 방법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 중 67%가 ‘시위방식이 과격했다’고 대답했고, 19%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시

위 1회당 89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지난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17조 원이 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불교의 조계사가 민주노총 한 위원장을 끝까지 보호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사찰 경내에 국가 공권력 투입을 자초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타협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불법 행위자를 즉각 경찰에 넘겨,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지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종교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중궐기’ 시위 주동은, 종교계가 보호하고 감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찌 종교계가 범법자의 은신처가 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며, 국가 질서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려는가?

동 정

한정중, 비전70 학술지 발간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비전 70 학술포럼’을 발간했다. 한정중은 2015년 ‘사망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장로교회’라는 표어로 제7회 장로교의 날 비전학술포럼을 5분과로 실시했으며, 그때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장신대 이사장 김지철 목사 취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지철 목사, 총장 김명용) 이사장 이취임예식이 지난달 24일 교내 한 경직기념예배당에서 열려 제24대 이사장직을 이임하는 손대호 목사(장현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25대 이사장에 취임하는 김지철 목사(소망교회)를 축하했다.

한국장로신문사 임원 이취임식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장·발행인·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달 28일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신임 사장 겸 편집인 유효귀 장로는 “한국장로신문사가 화해하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임하는 박순태 이사장, 김건철 발행인, 유효귀 사장 겸 편집인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현일 목사, 여교역자협서 설교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현일 목사(생명나무교회)는 지난달 13일 능력선교교회(임은선 목사)에서 열린 (사)국제여교역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한국교회를 책임질 복음동임을 이를 청년 다음세대 양육에 전념하자”고 강조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불교계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가?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구호는 ‘박근혜 퇴진하라’ ‘국정화를 중단하라’ ‘쉬운 해고 박살내자’는 등 반정부적 성격이 짙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뒤집거나 뺏장부’라는 구호도 난무하였다.

그런데 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를 피해 불교 조계사로 피신하였다. 그가 정당한 시위를 주도했다면, 종교 시설로 피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불교계가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의 신변보호를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사과나 반성언커녕, 여당의 김진태 의원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감지해야 한다’는 모 방송사 인터뷰 발언을 두고, ‘반불교적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의 기독교 신앙까지 문제 삼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불교계가 마치 현대판 소도(蘇塗-삼한 시대에 죄인이 도망해도 잡아가지 못함)를 흉내 내는 듯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엄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범법자이며, 그가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 버스 50여 대가 파손되고, 경찰 병력 113명이 다치

는 등, 국가의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국가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는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가톨릭의 명동성당이 지난 2001년 민주화 이후로, 노조나 노동계의 농성과 노동 인사들의 피신을 거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불교계는 지난 20일 조계종 조계사의 이름으로 “불교를 탄압하느냐”는 성명을 내고, 23일에는 조계사의 대표 승려들이 여당의 김진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의 종교를 의도적으로 몰아서, 개인의 신앙행위까지 문제

-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응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갈 빠진 2013~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후휴 365일 주문접수)

목회자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어떠한 족적(足跡)을 남기시겠습니까?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FP통신은 상류층(upper class)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캘리포니아 대학과 토론토 대학의 공동 연구결과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대학의 연구진들은 고가의 페르세우스-벤츠나 BMW를 운전하는 부유층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캠리, 코롤라 운전자보다 사거리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고가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저가 차량보다 더 빈번했다. 주차위를 던져 놓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50달러의 상품권을 받는 실험에선 모든 실험자들은 똑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실험 대상자 중 일부는 상품권을 타기 위해 자신의 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원은 “이 실험에서 거짓말을 한 부유층이 저 소득자에 비해 3배나 높았다”면서 “이 연구 결과는 부유층이 저소득층보다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들을 위해 캔디를 남겼다고 말한 뒤 이 캔디를 먹는지를 관찰한 실험도 있었다. 실험 결과 상

류층 실험자들이 다른 계층보다 2배 많은 캔디를 먹었다. 연구진 측은 “아이들을 위한 사탕 실험에서 보듯 상류층이 저소득층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유층은 다른 계층보다 자립심이 강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윤리적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부유층의 근본적 동기가 탐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자신의 재산의 상당수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워렌 버핏이나, 월드프의 회계 부정을 폭로한 신시아 쿠파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부자들의 비윤리적 모습에도 예외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폭력 범죄 비율이 부유층보다 더 높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2-02-28 10:39)

필자는 위의 기사를 접하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사회 윤리와 다를까? 지금의 한국교회의 다름과 본질과 질타의 요소들을 구태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약간

의 시력만 있다면, 큰 사건들이 보이는 현실에 “우리들 곧 그리스도인은 세속인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그만 고개가 숙여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칼빈”의 신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칼빈”의 삶은 없고, “웨슬리”를 내세우지만 “웨슬리”의 삶은 없이, 어느 한 부분도 소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교회사에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목청을 높이지만, 외침으로 끝남을 넘어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일들까지 발생되고 있음 또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김영삼(88) 전 대통령께서 2015년 11월 22일(오) 22분에 대한민국 역사에 화합, 통합, 민주화라는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를, 지금이며 아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분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히 13:13)



온선 칼럼

문천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총체예술, 접목이 아닌 조화

(고전 12:1-31)



리처드 바그너(Richard Wagner, 1813 - 1883, 독일 음악가)가 주장한 ‘총체예술’ (總體藝術, Die Gesamtkunstwerk)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방식만으로는 결코 예술의 궁극적 완성에 다가갈 수 없기에 모든 장르가 힘을 모아 큰 목적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중적 예술사조입니다.

예를 들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등의 장르들이 하나 되어 오페라 혹은 영화라고 하는 총체예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얻은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삶,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이른바 총체성(totality)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전문화되고 분화되어버려서 개인과 개인, 장르와 장르, 세계와 세계가 서로에 대해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와 입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총체예술은 그런 각자의 세계가 서로 조우하고 연대하는 통합된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총체예술(total art)은 소위 말하는 종합예술(composite arts)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예술은 예술의 여러 장르의 특성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총체예술은 그 하나 됨을 위해 결코 각 장르의 고유성을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총체예술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공동의 목적, 즉 공

감(共感)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서로가 지닌 가치와 장점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개방성(開放性)이 필요합니다. 셋째, 두 사람 이상이 협업을 해야 하므로 자기 욕구의 절제(節制)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총체예술은 접목(接木)이 아닌 조화(調和)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접목은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큼니다. 그러나 조화는 다른 것들의 평화적, 합리적, 목적적 공존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태생이 다른 것들을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들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거나 한다면 통합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더 큰 갈등과 분열 내지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의 상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로 몸으로 표현했던 베드로가 있었는가 하면, 치밀하고 계산적인 마테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환상을 보는 몽상가로서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하나의 공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훌륭한 총체예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뿐입니다. 공감과 조화만 있다면 우리는 다름의 어울림이 만드는 총체예술의 완성을 맞볼 수 있습니다. 역사도 민족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바로 이 총체예술이 성공할 때 번성하게 됩니다.

필립스코리아, 5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독거노인과 노숙자 무료급식에 제공

필립스코리아(대표 도미니크 오) 임직원들은 지난달 28일(토) 인천 계양구 소재 사단법인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벌였다.

필립스코리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한 700kg의 김치는 사단법인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사랑의백김밥차’를 통해 서울역, 인천 부평역과 주안역, 계양지역에서 홀몸독거노인, 노숙자 등 매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사업에 제공된다.

필립스코리아는 2011년부터 매년 사내 자원봉사 동아리 아릅드리,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김장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회 ‘사랑의 쌀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부문 단체상’을 받기도 했다.

‘파스한이웃’, 친환경 김장나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전용재 목사)가 지난 달 20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교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2015 파스한이웃과 함께하는 제3회 사랑의 친환경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파스한이웃’(대표 최이우 목사)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종교교회, 광현교회, 아현교회, 아현중앙교

회, 광희문교회, 정동제일교회 등 열다섯 교회가 연합한 봉사단체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이번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300여 성도들이 정성 가득 담긴 1만1,500kg의 김치를 담가 40여 개사회복지시설과 200여 명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CTS, 제19대 공동대표이사 취임 감사예배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박무용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취임

창사 20주년을 맞은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지난달 23일 CTS아트홀에서 제19대 공동대표이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9대 공동대표이사로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와 박무용 목사(예장합동)가 새롭게 취임했고, 전용재 감독(기감 감목회장)은 제17,18대에 이어 연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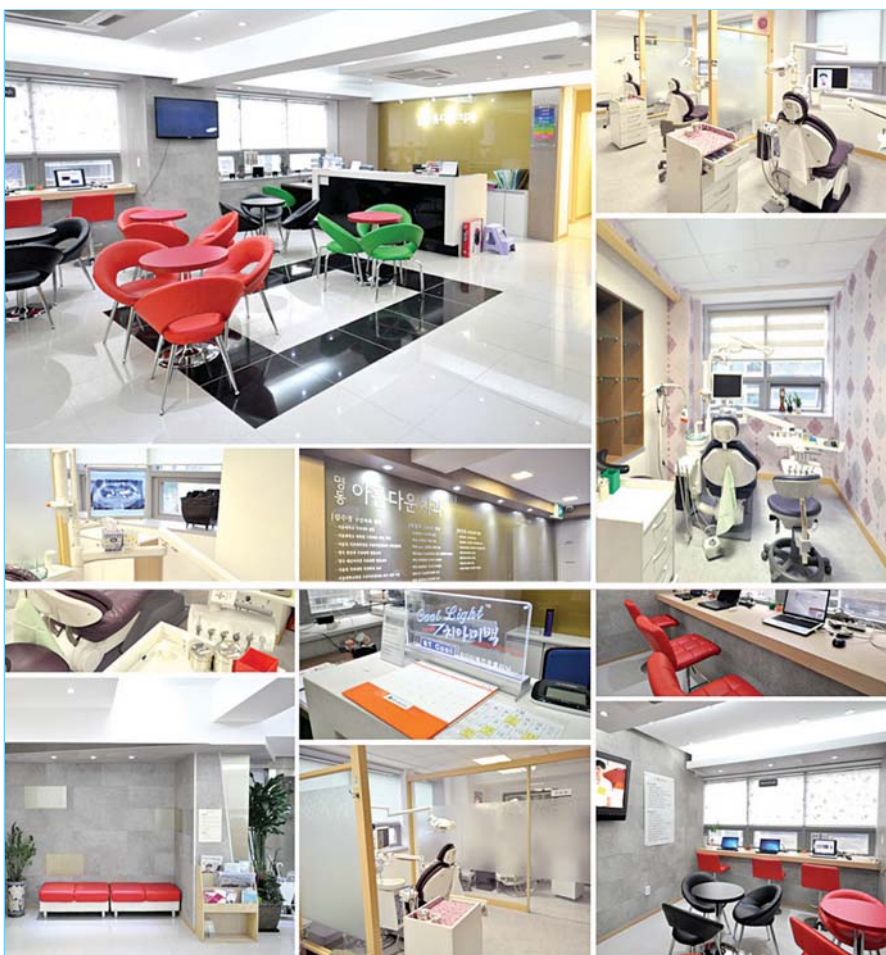
이날 새로 취임한 신임 CTS공동대표이사 채영남 목사는 “CTS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을 지켜봐왔다”며 “CTS의 창사 목적에 따라 순수복음 전파와 건강한 기독교와 확산에 대한 사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CTS 김정철 회장은 “창사 20주년을 맞은 CTS가 성년으로써 전 세계로 복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역대공동대표이사들을 비롯한 존경하는 한국교회의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새로운 20년의 첫 출발을 함께할 신임 공동대표이사님들과 함께 영상선교사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주오내빈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박위근 목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삼상 14:6-7, 14-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최진규 아나운서와 김석균 목사 등 CTS 영상선교사역과 함께해온 출연자 및 동역자들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10주년, 20주년 근속사원에게 근속패를 전하는 등 기쁨을 함께 나눴다.

20년 근속패를 수상한 CTS 보도팀 강권수 국장은 “199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CTS 영상사역에 몸담은 지난 20년 동안, 교계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왔다”며 “늘 그랬듯 순수복음 전파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으로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명동아름다운치과
MYEONGDONG AROMADOWN DENTAL CLINI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진료 : 오후 9시까지

찾아오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찾아오는길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6년 1월 4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4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 등 용
하나님의성회 총무 목사 김 병 목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6-1007



(학장 임종달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흠로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 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이규호 목사)

예하성강원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사이버신학과정 운영 중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회망로 87
- T E L : 033)434-3136, 010-7504-0172
- e-mail : li4499@naver.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전국여교역자국 2015 송년회

**참된 변화를 일구는 새해 다짐
망 끝까지의 복음전파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탁정신 목사, 차장 김선경 목사)는 지난 11월 30일(월) 오전 11시 대림동 뱀엘교회(담임 정부용 목사)에서 2015년 송년모임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깨우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변원식 목사(정조교회)의 인도로 뜨겁게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행사부장 최영희 목사(예준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일산뱀엘교회)의 성경봉독, 전국 각 지부장의 특송, 전국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뱀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고후 5:18-19 말씀을 본문으로 '지도자의 세가지 유형'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길로 나아가는 진실된 교단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리고 더욱 진실한 주의 종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도자로서 방관적 지도자가 되지 말고, 비판적 지도자가 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된 지도자, 성경적 지도자,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을 역설했다.

이어 배세진 사모(일산뱀엘교회)의 헌금특송, 행사부장 김종애 목사(군업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교단 전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예배 후 대림뱀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오후 1시부터는 변원식 목사 인도로 한바탕되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오후 예배는 홍보부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진교부장 이명순 목사(순복음기쁨교회)의 대표기도, 여교역자국 임원들의 특송, 예배부장 김효신 목사(순복음찬양교회)의 성경봉독,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온선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탁 목사는 행 5:27-32, 41-42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의 세가지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해 동안 배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알찬 세로운 한해를 맞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축복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 한바탕되어 기도했다. 이어 김선경 목사의 광고, 탁정신 목사의 축도로 송년모임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 목양지로 향했다.

설교



정부용 목사
전직 부총회장
대림뱀엘교회 담임

설교2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온선교회 담임

사회



김선경 목사
여교역자국 차장
천안세계교회 담임

성경봉독



조영란 목사
기획부장
일산뱀엘교회 담임

대표기도



최영희 목사
행사부장
예준순복음교회 담임

헌금기도



김종애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담임



레크레이션 및 찬양 인도 변원식 목사



한금특별 연주 배세진 사모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팔 카트만두 선교 현장에서

네팔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오늘도 힘을...

“화평케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것이요”(마 5:9)

말씀에는 분명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들 됨이 간단치 않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아들 됨은 먼저 화평케 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우리는 화평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며 가여하는가, 살벌하기 만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말이다. 내가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타인이야 죽든 말든 앞만 보고 내달리게 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타성에서 나와 타인, 타인과 타인, 나라와 나라사이에 끼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뜻을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인가.

화평이란 한마디로, 세상은 서로 제발 싸우지말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시적 바람이자 명령이며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도이다.

그럼에도 삶의 현장이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적지생존이라는 필연적 숙제를 안아야하고 한 가지씩 인지되어야 하는 모든 가지적 상황은 배움을 통해 알고 생각하며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주어지는 각종 문제와의 갈등, 즉 자아와의 싸움을 면할 길이 없다. 말하자면 세상과 나의 부대침이란 곧 이룰 수용하고 이해,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생존의 적합한 여부가 가능되는 실존의 현장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란 존재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로부터의 갈등을 인내하며 극기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는 매일의 삶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을 이기고 다스릴이 쉬운 듯하면서도 실상은 무엇보다 어려운 점에 속한다. 왜냐하면 회비예락이 교차하는 매일의 삶이란 마치 가파른 파도를 타고 넘듯 균형감각을 잃고 자칫 쓰러지기가 일수며 또한 제마다 다른데 타고난 천품, 기질은 경우에 따라서 환경을 극복하는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세속적 습관으로 알게 모르게 져버린 타락한 성품이라면 남다른 자기정찰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제3의 눈(객관적)으로 스스로를 관조하며 컨트롤함으로써 자신과의 조화로운 타협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과의 화평이란, 일단의 믿음, 곧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신념화한 믿음일지라도 이에 대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의지가 심보 발휘, 견지될 때만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따지기 바쁜 세상살이에서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관계란 결코 쉽지 않다.

필요에 의해 부득이 지속되는 만남, 그래서 결판포장된 화평이란 진정한 화평이 아니며 그것은 불시에도 이해관계가 무너지면 삼사간에 사라진다. 일차적인 나의 소유이나 주장, 일단의 번거로운 심리적 걸림돌이 정리되었다면 이후에는 피차못할 타인들과의



만남이며 이 역시도 불협화음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대하나 교제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날그날의 십가여부에 따라서도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간, 나라와 나라사이의 평화로운 교제 서로간의 진실과 믿음이 교차되는 평강이란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정녕 시종일관 평정한 교제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된다면 실로 그 폭격이란 약속의 말씀을 준행, 성취한 신령한 경지에 이른 것이아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사는 사회에서 상호간의 화평을 도모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한 도무지 불가능하다. 돈, 권력 등의 가지적인 힘이 앞서서 지배하는 인간사회란 물리적이고 가지적인 힘에 더욱 편승함으로써 서로의 특성을 매워가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화의 공유하기가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십자기의 공로 없이도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도 사람간의 격의 없는 진정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요동치 않는 평화로운 천국이 되지 않았겠는가? 돈과 물질의 유혹, 그 위에 조금의 탐만 생겨도 이를 노려 파고드는 마귀의 영적 부추임과 도전, 험과 욕을 입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엔 불가항력적이며 다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이란 말씀이 뜻하는바, 의미를 먼저 깨닫고 이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이미 화평의 열매는 믿음과 동시에 안락으로 주어졌겠지만, 세속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무대 위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를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한 인간의 속성을 입고 있는 한, 주님께서 지신 화평과 구원의 십자기를 빼놓고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화평의 여지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로 전략적 차원의 발상에서 나온 화평이란 때를 따라 처방하는 임시방편적 수단과 같아서 결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화평은 믿음, 소망, 사랑과 아울러 수반하는 십자기를 의미하며 십자가란 바로 자기 희생이다. 이와같이 화평을 바라는 자라면 누구라도 믿음과 인내로 일관하면서 주님의 십자기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화평은 나를 위함은 물론 나와 나를 동

시에 위함이다. 곧 화평을 위한 십자기는 한낱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부활처럼 감사와 기쁨이 동시에 주어지는, 종래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며 천국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의 십자가 일지라도 처리리 그것은 감사와 화복의 제목이지 저주의 결과는 결코 아니며 최후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려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지리가 될 것이다.

십자기는 인력으로 감당되는 것이 또한 아니다. 인력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인한 신령한 의지는 여하한 한계상황이라도 격파한다. 세상의 어떤 보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는 인내와 희생은 곧 마르지 않는 은혜의 깊은 샘과 연결되어 마침내 성화된 영혼이 영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영화한 영혼에게는 죽음이란 잠시잠깐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언덕진 경계와 같다. 그리고 그 너머엔 활짝 펼쳐진 대 초원이 기다리듯 영원한, 영생의 파라다이스가 기다린다.

요즘 나라 안팎의 소식은 정녕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국악도한 대형 살상사건들로 지구촌이 피로 물들고 있다. 불과 보름동안 360여 명의 인명이 극단적 테러분자들에게 의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죽이고 말살시키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최후발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마 왔으로도 보다 더한 살상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랴.

오늘, 하나님은 중심에 화평을 기구하는 의인의 기도와 헌신을 찾는다. 누가 이를 위해 가까이 앞장서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자원하겠는가, 화평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적 결행과 희생을 요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을 도발한은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인 열사탐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역시도 변개함이 없으며 다만 땅에서의 열락에 취해 자기 이권과 주장에만 급급한 탐욕의 무리들을 향해 소리쳐 돌이킬 것을 촉구하신다. 더욱 확실한 소망과 비전이란 다만 신앙의 근본 마음자리가 영생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임을, 이 땅의 생명은 잠깐이나 천국은 영원한 것임을..

네팔 카트만두 선교현장에서 이들에게 복음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일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후 2015년 11월 1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성봉 선교사 드림 Reporter Sang-Bong Kim
후원계좌 102434-02-163989(우체국)
예금주 김성봉 457001-01-002622(국민은행)

영어·성경 동시에... ‘성경종합영어’

NIV 영어성경공부 시리즈 제1권 시편

《영어·성경을 동시에 배우는 영어성경공부 시리즈 제1권》 30여 년을 미국에서 살며 영어로 목회까지 한 목회자가 한국에 돌아와 교인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했던 영어성경공부 강의를 바탕으로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배우며 공부하도록 했다. 영어성경공부 시리즈 제1권인 이번 책은 150편의 시편 중 주옥같은 12편을 선별하여 시편 성경공부와 함께 영어 기본 문법부터 회화까지 3개월 안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저자의 30여 년의 미국 생활에서 얻은 실생활 영어와 성경학자로서 탁월한 성경지식이 고스란히 살아있어 오늘날 현직인이 쓰는 영어와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영어와 성경공부를 동시에 하는 책은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책만의 특징이자 자랑이다.

《신앙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고 즐겁게 배우는 성경 영어》

영어와 성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인뿐 아니라 시적 메시지가 살아있는 시편을 택하고 있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영어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 둘째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싶은 분, 셋째 영어성경으로 성경공부를 가르치려는 분, 넷째 타민족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 다섯



째 영어로 대화하고 싶은 분 등이다.

《30년 영어 노하우에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한 번에》

저자는 이 책에 30년 미국 생활에서 쌓은 영어 노하우와 신학·선교학·목회학을 배운 목사로서 자신의 성경 지식을 녹여 냈다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이 책은 단순히 영어로 성경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식을 얻도록 구성했다. 영어 초급자라도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 하면 성경공부를 하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 종합영어’는 개인, 그룹 혹은 교회에서 영어성경공부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지은이 : John Kim

발행처 : 도서출판 반북

책값 : 13,000원 / 분량 : 264쪽 / 판형 : A5(신국판, 152*210) 02)6925-0370



기아대책, 건강나눔그림대회 시상식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KGC인삼공사(사장 박정욱)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 락홀에서 ‘건강나눔그림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건강나눔그림대회’는 5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 나눔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구촌 굶주린 이웃에 대한 나눔의 실천을 돕기 위해 열린 대회로,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관심 가운데 진행됐다.

2013년 KGC인삼공사의 후원으로 처음 시작한 이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림

으로 표현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울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송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교육과,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 등 아동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창의력, 표현력 및 주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42점이다.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기아대책의 건강나눔교육과 함께 진행된 이 대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도화지에 그려진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눈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률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추모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입구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변질과 부패로 별례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시설을 이렇게 짓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멋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 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허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學園 Space Aesthetics 공간미학



K 코리아에프엔디 F&D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성황 ‘두 아들’ 팀 <내 하나님이어>, 대상 수상 영예



CBS 크리스천 찬양 지역자들의 대응본이 돼 온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증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20일, 예선을 통과한 최종 10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제26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결선 무대에서 영예의 대상은 깊이 있는 성악 톤으로 ‘내 하나님이어’를 열창한 ‘두 아들’ 팀에게 돌아갔다. ‘블랙 가스펠’을 선보인 ‘드림싱어즈’가 금상, 10대의 패기와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한 ‘투엘름’이 은상, 바 이올린과 함께 무대에 오른 고충연과 작곡자와 보컬로 만난 두 10대 소녀의 결합인 ‘낙향제’ 두 팀이 동상을 각

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뛰어난 가창 실력을 보여준 방소정 양이 작곡상과 1년간의 지역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기획사 특별상인 ‘GCM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진정성 있는 가사로 노래한 이정민 군이 작사상, 보컬을 전공하는 세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클로즈 투 헤븐(CLOSE TO HEAVEN)’이 가창상, 노래하는 목사를 꿈꾸는 김영민 목회자가 인기상, ‘씨뿌리는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 여성트리오 ‘쑈위저(SOWERS)’가 PD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하이패밀리 양평 시대 열린다”

하이패밀리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에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에서 ‘가정선교훈련센터(이하 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렸다. 3만여 평의 부지 위에는 갤러리부터 시작해 온갖 가족체험 공간과 힐링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가정선교사 훈련을 교육센터와 게스트하우스와 체류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양평 W-ZONE(양평 센터)으로 올라가다 보면 갤러리 비움과 채움’이 나타난다 세로로 길게 쭉 뻗은 모습이 아름다운 갤러리이다. 세계적인 알공예가 헬레나 킴을 비롯하여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 갤러리를 통하여 전시될 예정이다. 수목장 위쪽으로는 작품 ‘뭇달고’가 세워져 있다. 수



목장 위 양벽은 마치 배의 선두의 모양을 하고 있다. 대 구 가톨릭대 의외의 교수가 ‘뭇달고’라는 작품으로 기공식을 축하해 주었다. 이곳에는 포토존도 만들어져서 가족, 연인들이 멋진 추억을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비가 오는 날에도 말씀 능력전도다!”

비가 오는 날이다. 오랜 거름 끝에 축복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로 인해 전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사람이 많이 안 나오고 복음 전하는 데 비로 인해 불편하지는 않을까. 날씨로 인한 아쉬움을 안고 영등포 왕성교회(담임 모종운 목사)에서 10월 13일 오후 2시 박영수 목사 초청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가 있어 참여했다. 가족세트전도 코칭예배는 가족세트전도 학장 박영수 목사의 인도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28:19-20)는 은혜로운 말씀 선포로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 교회 정문 앞에 나와 모두 우산을 쓰고 빙 둘러 서서, 기도제목 세가지 첫째, 공중권세잡은 악한 영들의 진을 묶는 명령기도와 둘째,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셋째, 영접기도 받은 자의 환경을 열어 주셔서 주일예배 11시에 나오도록 다같이 합심으로 통성기도한 후, 영접기도를 다같이 합창으로 후원하고 나간다. 먼저 전도작전을 세워 상가에 들어 갈 때에는 현장전도를 보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함께 모두 들어가면 상인이 놀라 거부하니 박영수 목사와 담임목사, 부목사, 처음 온 목회자 정도 4명이 들어갔다. 상인에게 먼저 전단지를 전해주며 “축복합니다!” “요: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부 동안 옆에있는 목사님과 이 기도를 바라하시면 구원 받고 축복받습니다 1부이니가 축복기도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영접기도 받은 자가 가족들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교적을 적도록 알려준다. 세상 말로 경찰관이 죄수에게 죄목을 물어보면 죄수가 진술하는 것과 같

이 술술 나온다. 이런 일은 그냥 되지 않는다. 그 순간 요:12 말씀 능력에 성령으로 압도되어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울러 왕성교회 담임목사가 축복기도 해주었다.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으로 전도한다. 불신자에게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마음에 어떤 다른 물품을 줘도 다 축복시킬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박영수 목사는 영혼구원에 향한 열정과 담대함이 성령 받은 베드로같이 충만하다. 전도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한다. 다른 전도방법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가족세트전도 방법은 탁월한 전도 방법이다. 3개월 전도훈련 꾸준히 배워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영접기도 30번하면 입이 열리고, 3,000번하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다. 가족세트훈련 받은 자는 탈변가져뽀 짧고 매끄러운 전도 맨트가 술술 나온다. 왕성교회 담임목사 내외와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애찬을 베풀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지역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전도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모뎀 삼고 열심히 성실함으로 사역하길 원한다. - 116기 회장 개봉동시온성교회 송영남 목사 -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성서공회 창립 120년, 국내외 성서 보급 감사 기념예배, 학술심포지엄, 성서전시회 개최

대한성서공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달 24일(화) 정동제일교회에서 기념예배, 학술심포지엄, 성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대한성서공회는 성경번역과 출판, 보급의 배경과 동기, 역사적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한 세계성서운동에 대한 기여 등을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았으며, 1895년 10월 18일에 한국에서 성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난 120년 동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성서를 보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20년 동안 통해 국내에 보급된 성경과 신약은 1억 1천여 만 부에 넘는다. 특히 현재 한국교회가 예배용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성경 전서 개역개정판>의 보급 부수는 1998년 발행된 이후, 국내 출판사들의 해설성경 보급 부수까지 합하면 1천 8백 7십여 만 부에 이른다. 또한 1973년부터 세계 성서공회들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1억 6천만 부의 외국어 성서를 보급했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이경이 이사장(대한성서공회)의 인도, 부이사장인 손인용 목사(덕수교회 원로목사)의 이름답도다, 복음 반포 120년! (사 52:7-10)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손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 이것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전 세계에 반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기념예배에는 대한성서공회 창립 초기부터 도움을 주었던 성서공회로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일레인 던컨 총무, 탄자니아성서공회 므쿰가 므팅켈레 총무, 일본성서공회 마코토 와타베 총무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기념예배 후 이어진 학술심포지엄은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글 성경 번역과 보

급의 역사”라는 주제로 박동현 교수(전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개역 성경의 재발견-’, 옥성득 교수(UCLA)가 ‘대한성서공회 120주년 회고와 전망-해방 이후 역사(1945-2002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한편 총 73종의 한글성경들이 전시된 ‘한글성서 전시회’에는 최초의 우리말 단편인 <예수성고 누가 복음전서>(1882년)를 비롯해 최초의 우리말 신약성서인 <예수성고전서>(1887년)와 초기 단편들 등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등의 성서공회들이 보관해 오다가 대한성서공회로 기증해 준 초기 희귀본 한글성경들이 전시되었다.

구세군자선냄비 자원봉사자 축제, 아름다운 동행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는 최근 충청로에 위치한 구세군 아트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문화나눔 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문화

나눔 축제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12월 거리모금 등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초대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시상식 및 다양한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약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현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아름다운 시상식, 가수 선의 토크 콘서트, 인의 공연과 다양한 선물들로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 감당

나로도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소나무숲길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달 19일(목) 전남 고흥에 소재한 '나로도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등 동우회 회원들은 전남 고흥 동강순복음교회(담임 최남성 목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영진 목사의 대표기도, 정석현 목사의 설

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살전 1:2-4 말씀을 본문으로 '끊임 없는 기약'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여 준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쳐도록 하자"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박흥렬 목사의 헌금기도, 김남순 사모(동강순복음교회)의 색소폰 연주 후 최형택 목사가 '동성애와 이슬람의 심각한 현실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제목기도 시간에는 서정복 목사가 '나라와 민

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김명자 목사가 '종북세력 축결을 위하여', 김태주 목사가 'WCC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조은혜 목사가 '천주교 신앙직제 일치 반대를 위하여', 김갑신 목사가 '종회, 교단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고흥 동강순복음교회(최남성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나로도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소나무숲길'을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역사바로세우기 동참 등 논의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 첫 임원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지난 11월 9일(월) 오전 11시 동협회의 사무실에서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 취임 후 첫 임원회를 갖고 신임 임원진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0대 대표회장 상임회장 취임 및 회원교단 신임총회장 당선 축하 감사에 배회 건과 역사바로세우기 동참, 2016년 임원 선출, 신년하례 개최, 불우이웃 돕기, 군경위문, 31절 기념행사 준비 등 새 회기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레위성가 합창단 찬양선교 16주년, 송년예배

오직 찬양선교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섬기고 헌신해 온 레위성가 합창단이 찬양선교 16주년을 맞아 충무로 스모가스 뷔페식당에서 송년예배를 드리고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성효식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어 레위성가합창단 단장 이용희 장로의 환영사, 이재환 목사의 대표기도, 오동남 집사의 성경봉독, 이해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기도로 '국정안정과 대통령을 위해',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레위성가합창단 비전성취를 위해' 헌신헌정로, 백현우 강도사, 윤희혜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레위성가합창단의 찬양선교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회자의 광고, 박한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16년 전 찬양선교사역을 위해 설립된 레위성가합창단은 무려 41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참전용사보는 찬양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오는 등 찬양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단장 이용희장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찬양선교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은 물론 내년부터는 선교영화 작업에도 착수하여 다양한 선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070)7697-2004, 010)2273-9030

2016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및 시무예배

일시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

임원명단

△고 문: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 문: 최보기 목사(기침)
△고 문: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고 문: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 문: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 문: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 문: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고 문: 윤덕남 목사(기침)
△고 문: 임종달 목사(예하성)
△이사장: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예하성)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기침)
△서기: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서기: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회계: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진리)
△부회계: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감사: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진리)
△감사: 이상익 목사
(예장연합오순절 교회총회)

가입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 총무: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 총무: 김병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이영만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장완준 목사, 총무: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김영길 목사, 총무: 정호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이한영 목사, 총무: 구영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 위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이상익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황상호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김혜순 목사, 총무: 조영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안형숙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김지현 목사, 총무: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박경숙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홍록두 목사, 총무: 박영출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총회장: 김효중 목사, 총무: 광명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이성재 목사, 총무: 김영철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라이프비빌딩 811호
TEL: (02) 786-1601-4, FAX: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강의를

김경원 목사 // 한복합 중앙위원, 한복합 대표회장, 서천교회 담임

한국교회,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③

- 일차와 갱신, 그리고 섬김으로 -



셋째, 섬김(Diakonia)이다.

1998년 11월 한복합이 창립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은 그해 12월 섬김 사역을 위해 한복합 소속 교회들의 성탄헌금 중 십일조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드리는 재정으로 확보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성탄예배를 드린 사업이었다. 이 사업 속에서 "봉사와 섬김은 우리를 하나되게 만든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처음 구뎡마을 관자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한복합 성탄예배는 지난해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의 시각지대에 놓인 많은 소외된 이들을 찾아 매년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향한 교회와 사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 되어 봉사하며 더욱 하나 되는 일은 세상을 밝히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은 한복합이 꾸준히 해 나가야할 사역으로 보고 힘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은 한국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한국 초기 교회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시대의 영적인 등불로서 국가의 신분철폐와 남녀평등, 그리고 민족계몽에 힘써왔다. 국권찬탈과 가난, 무지 가운데 놓인 어두운 시대 속에 한국교회는 섬김 사역을 통한 민족의 등불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섬겼으며, 이러한 섬김은 평양대부흥운동의 화개와 정직의 영적 대각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 년간 한국사회를 향해 섬김의 사역을 지속해 왔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도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생계와 장애, 억압을 넘어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섬김의 현장 속에서 한국교회의 섬김 또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신뢰는 대외적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닌 한국교회 섬김 사역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있다. 제도화되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을 넘어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각 영역 속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한국교회의 '연합운동'과 '신뢰회복' 등의 문제들이 섬김 사역을 통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리고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만남의 장을 계속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교회 구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구조로 나아가 일치를 이루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갱신, 그리고 사회를 향한 온전한 섬김을 위하여 모든 뜻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구고 소망의 그루터기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초대시

예광 장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미술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외 13중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학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스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88년 KBS전국위호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서로사랑 실천하세

은혜입고 못값으면 배신일랑 하지말라
부모은혜 입고자라 성공후엔 갚아야지
부모님을 멀리하고 배은망덕 하는자들
그대잘못 자녀들이 배운다는 사실알라

부모은혜 모르는자 스승은혜 어찌아라
졸업하면 그날부터 남남으로 돌아서니
스승제자 연대감이 어디에서 생겨나며
서로사랑 실천으로 스승마음 헤아리세

친구은혜 입은후에 언제됐나 깔보고서
자기자랑 도취되어 배은망덕 일삼는자
이런자는 말도많아 남의흥을 즐기면서
친구배신 스승배신 떡먹듯이 하더이다

배은망덕 하는자는 그마음도 불안조조
자기잘못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아서서 짐을뺄는 나쁜사람 표본되자
이런사람 없어져야 살맛나는 세상오네

사설

‘북한 선교’, 기도로 준비해야한다

지금 남한으로 탈북하여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2만8천 6백여 명이다. 지난 3년여 이래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수가 연간 1천명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는 6백여 명에 그치고 있다 한다. 이는 김정은 집단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였고 북한에 장마당 경제가 다소 완화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단이 독재와 폭압에 견디지 못해 탈출로 송동을 열고자 하는 무고한 백성들을 철통 감시로 얽매어 보았는지 역으로 체제 불안 요소를 키우는 꼴이 될 뿐이다.

북한 노동당 정보기관인 보위부 해외사업 담당 국장급 등 핵심간부 최소 5명이 지난 7월 탈북하여 한국에 망명했다고 보도되었다. 고위직을 비롯한 엘리트 층 탈북자들이 이미 30여 명에 이른다고 우리 정보 당국이 국외에서 밝힌 바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버넷 교수는 지난 11.13. 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 붕괴 시 남한으로 오는 북한 난민은 3백만 명, 중국으로 가는 난민은 5백만 명이 될 것이고 중국은 북한 내에 진입해 국경선 50km 떨어진 지역에 자체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것”이라 했다.

12.10.세계 인권의 날이 돌아왔다.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11.19.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 지난해보다 찬성이 1표 늘었고, 기권은 5표 줄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듯하다는 언론 보도도.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김정은을 지칭)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말세에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무너질 적 그리스도의 땅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와 인권 유린과 무고한 백성에 대한 처형이 지행되고 있는 저 북한 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이를 잿더미처럼 무너뜨리신다고 하신다. ‘함란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기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예 18:2) 말씀하신다.

대한민국이 깨어 정신치리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앞서 기도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불교계는 국가의 질서를 존중해야한다

불교 조계종이 집시법 위반 도파현의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1.26. 성명을 발표, “불교계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가?”하고 비판했다.

옳은 말이다. 왜 일언하고 불교 조계종은 대한민국 국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청은 물론, 경찰의 조계사 내 수사와 범인 체포에 전폭 협력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했고 정부와 종교는 국법의 엄수를 의무로 한다. 조계종의 범인 보호 행위는 국법 유린행위다.

한국교회연론회는 “한상균 위원장이 정당한 시위를 주도했다면 종교 시설로 피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불교계가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신변보호를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사과나 반성은 커녕, 여당의 김진태 의원이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경찰 병

력을 투입해서라도 검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반불교적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의 기독교 신앙까지 문제 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다.

연론회는 “한상균 위원장은 엄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범법자이며, 그가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차 50여 대가 파손되고 경찰병력 113명이 다치는 등 국가의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국가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연론회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범법 행위지를 즉각 경찰에 넘겨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지키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이런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중결기’ 시위 주동은, 종교계가 보호하고 감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찌 종교계가 범법자의 은신처가 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며, 국가 질서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려는가? 라고 했다. 불교 조계종은 회개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교단공과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교사용(유치·유년·초등부 합본) 구역예배 공과 : 권당 5,000원
- ② 중·고등부 공과 : 2,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DVD : 10,000원

특징(교회학교 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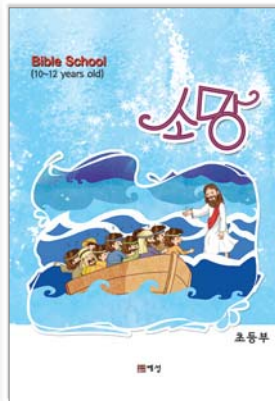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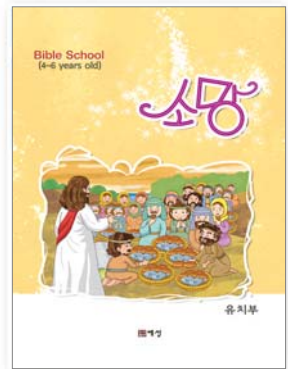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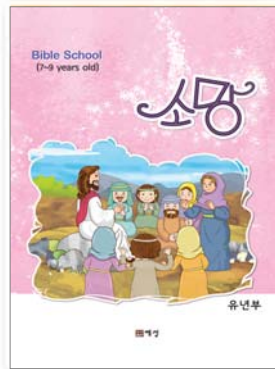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F a x : 031)223-1793
- ② e-mail : hello-pastor@hanmail.net
- ③ Internet : 교단 홈페이지 ‘2016년도 공과 신청 안내’ 클릭 후 이용
- ④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9779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 ⑤ 신청마감 : 2015년 12월 10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 031)233-2922,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5회, 총회목회대학원 제8회, 총회신학대학원 제5회)



2015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6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6년 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강당
-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①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②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전화 : (02) 2677-0692~3 ● FAX: (02) 711-9958 ● 홈페이지 : www.agtc.or.kr

홈페이지 :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연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 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우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12월 07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목대원 교학처)

- ④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년 02월 22일(월)
- ⑤ 합격자발표 : 2016년 02월 23일(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02)2677-0692~3

홈페이지 : www.agtc.co.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12월 07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신학교)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2016년 02월 22일(월), 총회신학교
- ⑤ 합격자발표 : 2016년 02월 23일(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 자격이 부여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02)2677-0692~3